

W_F_643

천지연 귀신

2018년 8월 19일, 제주시 연동 김옥자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옥자(여, 1944년생, 제주시 연동)

- 서귀포시 중앙동 출생, 결혼 후 1970년대에 제주시로 이사 후, 용담동과 오라3동을 옮겨 살다가 3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동에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천지연 근처에 밤에는 귀신이 자주 나와서 무서워서 안 간다는 곳이 있다. 한 사람이 하루는 밤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빗자루귀신을 만나서 밤새도록 헌 빗자루를 안고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다쳤다. 그런데 아침에 정신 차려 보니 꼭 안고 있었던 것은 빗자루였다.

[제보자] 귀신 나는 거 그건 내가 본 건 아니고.

[조사자] 들은 거? 골아봅서.

[제보자] 들은 거. 계난 우리는 천지연에 길 좋은 디는 멀어. 양데구리 영 탕으네 들어가는 금방이라이. 근디 좀 험허여. 그디가. 경현디 그땐 어린 때난게 팽팽 돌아뎅 일 때 아니냐? 그디서가 쪼끔 널른 장소도 잇인디. 아이들이, 다 오빠덜이 칼싸움, 그런 거 군대 거 뭐만 허멍 놀았어.

근디 한 사름이 이제 어디 갓단 오다네 도깨비 귀신을 만나네. 그디 간 막 헌 비차락 안안에 아침이 되도록 그건 안안 잇인디. 글로 막 뎅기멍 자빠지곡 자빠지곡 허멍 그디서 도깨비 귀신 만낭으네.

겐디 말짼 알안 보나네 그 비차락을 딱 안아네. 그건 누계 사람인디 귀신인디 그걸 안안 일로 갓닥 절로 갓닥 허연.

그 당시에는 글로 귀신덜이 막 하영 나. 계난 밤엔 일절 무슨와네.

- 핵심어: 칼싸움, 귀신, 비차락(빗자루), 천지연, 도깨비